

성서공회, 튀르키예 피해지역에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은 튀르키예에 큰 치유의 선물

튀르키예를 강타한 대지진으로 여러 지역이 폐허가 되었다. 주택과 병원, 교회를 포함한 많은 건물들이 순식간에 내려앉았다. 피해 지역에 접근할 도로의 복구도 시급한 상황이다. 타기성서공회는 현지 기독교 단체들과 협력하여 피해 지역 사람들의 필요를 살피고 있다.

지진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는 깨끗한 물, 음식, 복구를 유지할 자재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가족, 집, 직업을 잃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타기성서공회는 피해 지역의 교회에 성서를 보내주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씀을 나누는 이 무렵에 동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치유입니다. 튀르키



예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이 필요합니다." 튀르키예는 기독교인이 매우 적은 나라로 믿음을 지닌 기독교인들은 이번 지진으로 소수의 교회마저 무너져야 할 상황에 처했다. 이 곳의 기독교인들이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성서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성서공회는 타기성서공회와 협력하여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에 성서를 전달할 예정으로 있으며, 재난 지역에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튀르키예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이재민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기대를 붙여봤다.

지진의 영향을 받은 아다나(Adana) 지역 교회와 연관이 많은 타기성서공회는 다음과 같은 일화를 전했다. 기독교인들의 이웃 사랑이 떠나지 않아 무슬림인 이재민들의 편을 끼고 있다.

한교연 용산역 찾아 노숙인 등 섬겨

부활절 앞두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랑의 밥 나눔' 행사 가자

한교연연합대표회장 송태성 목사, 이하 한교연)이 지난 3월 21일(화) 서울 용산역 인근 노숙인에서 노숙인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2023 사랑의 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성위원회위원장 김옥자 목사 주관으로 열린 이날 행사를 통해 한교연은 우리 사회의 약자인 소외된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함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부활의 의미를 되새겼다.

올해만 매주 토요일마다 노숙인들을 섬기는 노숙자지원센터(대표 최성진 목사)에 200여 명의 식사 후원금과 함께 소고기 150kg을 전달하기도 했다.

대표회장 송태성 목사는 "주님은 가장 약하고 작은 자에게 한 끼의 밥을 나누어 주셨다고 말씀하셨다"며 "따뜻한 밥 한 끼가 어떤



운 이웃들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작은 위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위원장 김옥자 목사는 "우리가 할 일은 '우라'고 하면 따라 넘어지도록 안겨 주겠다'고 하신 말씀 따라 나누고 배움과 섬김을 실천할 뿐"이라며 "가난한 이웃들을 보살피고 섬기는 데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이날 밥 나눔 행사는 대표회장 송태성 목사의 지도로 사택에 한교연 임원들이 밥과 미역국, 불고기, 오이소박이 등 푸짐한 식사를 배식했으며, 식사를 마친 200여 명에게 200원씩 용돈을 지급했다. 특히 먼 거리에서 식사하기 위해 찾아온 독거아르스님들에게는 밥과 소고기 반찬 등을 맡겨 포장해갈 수 있도록 제공하기도 했다.

한기총, 교단·단체 총무 간담회

정서영 대표회장, "위상회복과 통합의 물결 틀겠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는 지난 3월 17일(금) 오전 11시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교단·단체 총무(사무총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는 "한기총을 제대로 세워 위상을 회복하고, 한국교회들이 이룰 면서 분열했던 역사를 통합의 모습으로 변모 시키겠다"라며 "다른 연합단체들은 한기총

에서부터 생각해가야 한기총이 다시 통합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기총이 연합사업을 펼쳐가면 자연스럽게 통합의 물결을 트겠다"라고 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오는 부활절 연합예배는 한기총이 정성화 된 후 드리는 첫 연합예배다.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드리는 데 교단·단체의 총무님들이 적극 협조하여

잘 드릴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다. 총무들은 간담회 후 우원, 동원, 환남 등의 역할을 분담하고 협력조직을 구성하여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에 만전을 기했다.

한기총 주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4월 9일(주일) 오후 3시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중로구 대평로 3길 29)에서 드린다.

총무들은 간담회에서 한기총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부분을 질의하고 논의했다. 또한 총무협의회 창제 부면에 대해서도 해법을 요청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위원회 활동이 목적에 맞게 될 수 있도록 하고 방법을 개선하여 활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총무협의회 해법을 관련 위원회 및 임원회에서 살펴 보겠다"고 했다.

한기보협, 104주년 3.1절 감사예배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할 때 통일을 이루어질 것"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대표회장 박영호 목사, 이하 한기보협)는 지난 3월 9일(목) 오전 11시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소재 동 협의회 비전센터에서 교단장 및 단체장, 발의이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라는 주제로 3.1절 기념 감사예배를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했다. 발의이사 박영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발의이사 한기호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무 정순경 목사의 특별한 강산 온전지를 뒤론드 민족의 가비니 독립만세 부른지 올해 104주년을 맞았다"며, "한국교회와 한기보협은 3.1절 만세운동을 잊지 않고 특별 집기로 감사예배를 드리며 기약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박 목사는 이어 "일본은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을 했다. 한국교회 보수신앙인들은 31운동을 순교자의 피로써 참여함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방의 선물을 주셨다"며, "정통신학을 바탕으로 서가는 보수교단은 계속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노라" 감사가 넘쳐나길도 이루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교봉, 튀르키예에 20만 달러 지원

유엔세계식량계획과 유엔난민기구에 각각 10만달러 전달

한국교회봉사단(대표회장 김태영 목사, 이하 한교봉)은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구호금을 유엔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난민기구(UNHCR)에 각각 10만 달러, 총 20만 달러(한화 약 2억 6천 만원)를 전달했다. 구호금 지원은 지난 3월 18일(토) 시리아의교회(이성 오영현 목사) 부흥선전 토요미션새벽예배 시간을 통해 이뤄졌다.

이번 구호금 지원은 시리아의교회와 지난 2월 19일 주일부터 시작한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를 위해 모금된 사랑의 헌금을 UN기구에 전달하기 시작한 것으로, 향후 한국교회봉사단은 한국교회 이름으로 모금된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재난 구호 헌금들을



현지의 필요 요청에 따라 직접 전달하는 시작을 알리는 출발점이었다.

오영현 목사는 이날 WFP 한국사무소 원선희 대표와 UNHCR 한국대표부 전해정 대표에게 전달하며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모습을 보일 때 더욱 진실하게 보이게 된다. 그것이 크리스챤인 우리의 가치"라며 "대지진으로 고통받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웃들을 위로하고 사랑을 나누자"고 말했다.

한교봉은 지난 2월 17일 시리아의교회에서 WFP와 UNHCR에 각각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 긴급구호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협약 맺었고, 이번엔 전달한 금은 유엔난민기구(UNHCR)를 통해 튀르키예 이재민 캠프 텐트 설치 및 컨테이너하우스 설치와 식료품 지원을 하며, 특별히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시리아에 대한 지원으로 이종호를 겪고 있는 난민과 이재민들에게 물품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신대 이사장·총장, 차별금지법 반대 1인 시위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법 · 23일 아침 국회 6문 앞에서

서울신학대학교 백운주 이사장과 황덕형 총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6문 앞에서 약 1시간가량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최근 자주 목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이 시위에 백 이사장과 황 총장은 동참했다. 시위에 동참한 계가 대해 백 이사장은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이다. 이는 곧 악법이며 우리의 자유를 망치고 우리 나라를 망치는 법이어서 이것은 절대로 막아내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우리나라만큼은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아랑케짓지 막아내서 건강한 가정, 나라를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다"고 했다.



이와 "포괄적 차별금지법만 아니라 건 강가정기반법 개정안,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등은 우리의 자녀들과 나라를 망치는 법들

이기에 목회자로서,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 이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기 위해 이렇게 나오게 됐다"고 했다.

미목 사무총장 박병득 목사, 예수기쁨교회 설립

지역을 섬기고 위로하는 교회 추구

지난 3월 4일 창당예배를 드린 경기도 광주 소재 광주(수)기쁨교회(담임 박병득 목사)가 광주지역 복음화를 위한 2주 연속 간담회를 갖고 예수 그리스도 보혜사의 능력을 통한 복음의 불꽃을 크게 지낼 것을 다짐했다.

3월 12일에는 중원빌딩 7 김민정 권사의 간담회 가운데 이어 19일에는 영화 영상이

의 주인공 이예준 권사를 초청해 간담회의 시간을 갖고 두 사람이 같은 삶을 통해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하는가에 대해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이와 20일에는 자신이 개그맨의 길을 버리고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된 배경을 전술하게 간담회는 시간도 가졌다.

KBS 7기 개그맨 출신인 박병득 목사가



실용한 광주(수)기쁨교회는 지역을 섬기고 위로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세 바깥과 꿈을 함께 이루려는 공동체로 특히 청소년과 청소년에게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누어갈 예정이다.

4일 창당예배는 주영교회로 정귀석 목사가 집례를, 김장식 사모가 축사를, 장영기 수녀가 특송을 불렀다. 그밖에 신동원 전 광주지장·박은숙 교수(가천대)는 축사를 통해, 양인우 목사(강화교회)는 격려사를 통해 광주(수)기쁨교회의 설립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박병득 목사는 기독교예배도 편집국장 등 기독교인에도 감사했으며, 함께 극단 ID 사모인 대표, 광주YMCA 이사장, 미래교회 포럼 사무총장 등 기독교관련 다양한 단체에서 봉사하고 있다.

새봄맞이 어르신 사랑 'K-뷰티케어'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진행



행복인문도시사업은 필자는 K-뷰티소사 아이티연구소(대표: 소정 최혜은) 교수·신한뷰티서포터즈(SBS)가 주관하고, 사회개발(NGO) (사)월드뷰티원즈(WBH 이사장 정영일)·엘드랜드노인대학이 주최한 '새봄

맞이 어르신 사랑 K-뷰티케어'가 쪽방촌과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0일(월) 진행했다.

최혜은 소장은 "추운 겨울을 잘 이겨내시고 따뜻한 새봄을 맞이하는 지역 어르신들

께 헤어&스킨 케어를 통해 활력을 제공해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특별히 SBS 동아리 친구들과 함께 뷰티를 통해서 사랑을 전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정영일 WBH 이사장은 "고독사 재로 프로젝트를 실천하는 엘드랜드노인대학 어르신들이 새봄맞이 멋진 내모습 갖기! 자존감을 회복하고 당당하고 건강하며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최혜은 교수님과 신한뷰티서포터즈 동아리 학생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K-뷰티소사 아이티연구소(대표: 소정 최혜은)는 행복인문도시사업을 위한 내빈과 외빈의 아름다움을 실현하고자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작년 9월부터 지역사회주민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선교 전시관’ 개관 해외선교 25년의 발자취

조용묵 목사 “선교의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열정과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된 것” 강조



은혜와 진리교회의 해외선교 비전과 역사를 한데 모은 ‘세계선교 전시관’이 안양성전 트루스빌빌 10층에 마련되어, 3월 15일(수) 오후 당회장 조용묵 목사를 비롯해 선교위원장 세계선교연합회 임원, 청년회 원과 봉사자,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가졌다.

선교위원장 겸영로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개관 예배에서 당회장 조용묵 목사는 행 1:38에서 8월 말씀을 본부로 한 선교에서 은혜와 진리교회가 그동안 해오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님들을 도와 광대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열정과 은혜 그리고 성령님의 권능으로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조 목사는 세계선교적극화 목표를 위해 여러모로 헌신해 온 세계선교연합회 회원과 지도와 헌신으로 세계선교에 적극 동참한 성도들의 헌신에 대하여 장시간 이어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외에서 온라인 회의를 통해 전시관을 기획하고 또 활동하게 구워서 개관하기까지 그동안 수고와 아



까지 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에 대하여 격려와 자화의 말씀을 전했다. 그리고 전시관을 방문하는 분들이 감동 받고 선교의 열의가 증진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었다.

개관식에 이어서 참석자들은 비자별 다양한 자료들을 살펴보고 영상물을 관람하면서 은혜를 나누고 나누게 모든 영광을 돌렸다.

이날 문을 연 ‘세계선교 전시관’은 ▶해외선교지 방문 연혁 ▶의료선교 등 국내 외국인선교의 활동

▶IMCR(세계선교와 교회부흥세미나·MIC(선교사 초청대회)·청년IMCR대회 ▶청년봉사선교회의 해외선교활동 ▶그라이스앤 트루스 미션센터의 해외선교의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와 함께 영상실에서는 2014년 8월 세계하나님 의성회(WAOC) 본부가 있는 미국 미주리주 스프링필드에서 ‘세계하나님의성회 선교대회’와 함께 열린 미국 하나님의성회 100주년 기념성회에서 대표강사로 초청되어 메시지를 전한 조용묵 목사의 설교 동영상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선교위원장 겸영로 장로는 “영상실에서는 앞으로 해외선교지에서의 활동을 담은 동영상은 순차적으로 상영하고, 전시관 중앙에 설치된 2개의 모니터를 통해 세계선교 사역의 현재와 미래를 담은 기획 영상물을 상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전시관이 ‘세계선교적극화’에 더욱 매진하는 모멘텀이 되고 청년과 미래 세대가 세계선교에 대한 큰 비전을 갖게 하는 데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 이웃을 살리는 생명의 사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재사를 기뻐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세상을 떠나실 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날, 빛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을 위해 각막기증으로 사랑의 빛을 나누어주세요.
당신이 나눈 사랑의 빛은 두 사람의 새로운 삶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생명의 사랑에 참여 안내

본부 소속 목사가 설교자로 말씀을 전하고, 이후 장기기증 허락동의를 작성합니다.
등록에 참여한 성도들에게 등록증을 나눠드리며, 교회에는 기념품을 전달합니다.

문의: 교회협력팀 02-363-2172 | www.donor.or.kr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군 선교위원회(위원장 박순용 목사)에서 는 국토방위에 여념이 없는 장병들을 위해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TV, 컴퓨터, 스마트폰으로 정서가 메말라가고 게임중독 등으로 이기적 삶의 형태로 변해가는 신세대 장병들에게 이러한 기기를 을 멀리하고 책과 함께 함으로 정서함양과 협동심, 사회성, 희생정신과 봉사과 희생정신을 일깨우는 중요한 방법이라 생각되어 도서보내기운동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내용의 책들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장병들에게 평안과 위로, 안식과 믿음을 심어줄 수 있는 종교서적·설교집, 신앙잡지, 설교 테이프, 찬양 테이프, CD 책 등 군생활 속에서 장래의 꿈을 심어 줄 수 있는 책과 국가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관련서적,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등의 요리서적, 경제 및 건강관련 서적, 소설로 된 역사책 등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새 책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 장병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무상으로 지나쳤던 책들이 있으면 장병들을 위한 사랑의 마음으로 책거 보내주시면 귀하게 사용하겠습니다.

관심과 사랑으로 보내주신 한 권의 책이 이기적이었던 신세대장병들을 동료를 내 몸처럼 아끼고 배려할 줄 아는 선한 이웃으로 변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하나님이 주신 천년초 식품이 간헐적 단식에 최고의 식품입니다



천년초의 효능

70인 천년초식품

*본제품은 식약처(성분검사)를 필함



백년초는 멕시코 산으로 독성이 있습니다.
천년초는 토종 한국산으로 독성이 없습니다.
천년초와 백년초는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천년초는 인체에 무해하며 독성을 지니지 않음 (서울대학교 천연물과학연구소 발표)

1) 매독성물질

- 1 손상된 신체조직복구(각종 염증을 다스림)
- 2 암세포 성장억제, 각종 암의 예방(위암)

(*고려대학교 순음식 교수님 임쪽으로 세계특허)

2) 플라보노이드

- 1 성인병의 주 원인인 활성산소를 제거
- 2 노화억제, 항산화, 항염, 항암예방(원광대 연구논문)
- 3 고혈압, 저혈압, 당뇨, 고지혈증, 백내장, 금성간염에 탁월(경희대 연구논문)
- 4 뇌혈관계 및 동맥경화 기능에 탁월, 뇌세포가 살아남(학계보고)

3) 타식물관: 퇴행성 관절염, 골다공증, 관절염, 통풍, 오십전, 류마티스관절염, 강직성 척추염(줄기를 붙여도 탁월) (전북대 연구논문)

4) 호흡기, 위: 위염, 위궤양에 탁월(서울대 연구논문)

5) 사포닌: 면역력 증가

6) 갈슘: 홍화씨의 24배, 열치의 9배, 우유의 50배, 감의 343배, 딸기의 240배, 머루의 600배 들어있음 (충서대 연구논문)

(*천년초를 복용하면 배가 세로 만들어 진다는 엄청난 연구논문 발표됨)

7) 식이섬유: 타식물(과일류, 채소류, 곡류)과 비교불가(호서대 연구논문)

식이섬유가 많아 다이어트에 최고식품 변비 즉시 개선

8) 불포화 지방산: 고등어의 3배, 오메가3, 6 함유로 식품중 가장 많이 들어있음

9) 비타민C: 알로에보다 8배, 오렌지보다 25배, 사과보다 48배, 딸기보다 11배로 식품중 가장 많이 함유(전북대 연구논문)

10) 기타성분: 단백질, 탄수화물, 화분, 지방, 아미노산, 마그네슘 등이 아주 풍부하게 들어있음(연구를 통해 발표됨)

11) 아토피, 피부질환 개선에 탁월한 효과

*간, 폐, 위, 기관지, 대장, 회장, 신장, 자궁, 갑상선, 심장, 유방에 효과입증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천년초를 섭취하시면 큰 도움이 됨

*유방·종기, 암 부위에 마늘처럼 천년초를 찧어서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뛰어나



목포시내산교회

본사 대표 방철성·조경숙

(목포시내산교회 안수집사·권사 부부)

010-2731-5594, 010-9884-5594

계좌번호 기업 010-9884-5594(조경숙) 농협 176112-51-020809(조경숙)

남가주기독교교회협 연합과 화합 위해 헌신 다짐

남가주기독교교회협회의 신임 회장에 최영봉 목사

미국 남가주기독교교회협회의 최근 영생전교회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최영봉 수석 부회장을 차기 회장으로 선출했다.

간절염 목사의 인도로 진행된 1부 예배에서 심진구 목사가 기도한 이후 정영자 전임회장이 고전 10:31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자'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예배는 류당열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2부 회의에서는 최영봉 목사 사회로 이윤일 목사가 기도하고 안도사가 있었다.

두 가지 안건 가운데 첫번째는 신승훈 회장이 여러 개인사정 등으로 사임을 표했고 총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두번째는 공석이 된 회장직을 수행할 후보로 수석 부회장인 최영봉 목사가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이후 정영자 회장을 가결하고 김정수 목사의 배회기도로 마무리됐다.

제53대 남가주기독교교회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된 최영봉 목사는 "교회를 정상화시키고 위상을 정립하며 이어지는 교회를 추구하겠다. 교제 연합과 화합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사순절 맞아 '생명나눔' 교회 늘어

전국 12개 교회, 성도 743명 장기기증 희망등록

대한사망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박진택 목사, 이하 본부)는 많은 한국 교회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장기로 고동 뛰는 이웃을 위한 '생명나눔'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사순절 첫 생명의 봄에는 2월 26일 광주 북구에 위치한 대곡중앙교회(담임목사 박봉주)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설교를 맡은 본부 이사장 박진택 목사는 "예수님은 죄 많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까이 다가오셨고 그 사랑을 통해 우리는 생명의 봄을 맞이할 수 있다. 죽음으로 다시 사는 생명, 그리고 나눔을 통해 더욱 커지는 사랑,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가르침"이라고 성도들에게 전했다.

이에 평소 지역사회를 향한 나눔에 관심이 컸던 박봉주 담임목사를 비롯해 성도 30명이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다.

3월 12일에는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은혜의동산교회(담임목사 이규원)에서 1, 2, 3부 이어 청년 예배까지 생명의 봄에ambo. 드디어 장기기증 사랑의 시간을 가졌다.

오래 전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했던 이규원

담임목사는 이 날 다시 한 번 장기기증을 약속하며 생명의 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성도들에게 권면했다.

이러한 본부 박영수 목사가 장기기증 참여 방법 및 절차 등을 안내하자 440명의 성도가 장기기증 희망등록에 참여하며 올해 사순절 기간 생명의 봄에ambo. 드디어 장기기증 사랑의 시간을 가졌다.

이외에도 2월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윤인동교회(담임목사 이광영), 경산김리교회(담임목사 이종학), 동남교회(담임목사 제동원), 대동교회(담임목사 전철민), 한림교회(담임목사 김효근), 성일교회(담임목사 전백순), 금성교회(담임목사 김병호), 장명선교회(담임목사 노광수), 사문중앙교회(담임목사 이성윤), 선릉중앙교회(담임목사 김성하)에서 생명의 봄에ambo. 드디어 장기기증 사랑의 시간을 가졌다.

본부 이사장 박진택 목사는 "장기기증은 몇몇의 뜻있는 사람들이 실천하는 일이 아니라 건강한 유체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마땅히 실천해야 할 사회적 의무"라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앞장서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나눔의 손길을 내밀 아들이 무척 감사하다"고 전했다.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7년 연속 선정

아산대 도서관, 지역 주민에게 인문학 향유 기회 제공

아산대학교(총장 정용환) 도서관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 주관하는 2023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공모사업에 7년 연속 선정됐다.

2013년 처음 시행된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지역도서관을 기반으로 지역주민에게 인문학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자신과 역사를 성찰하고 삶의 행복을 추구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서 아산대 도서관은 참여형, 사회확산형 2가지 유형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아산대 관계자는 "이번 인문학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주대학교생과 자립대학생들이 인문학을 기반으로 한 자기인식을 통해 건강한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돕고, 점차 확대되는 개인주의

가치관을 받아들이고 상생의 시대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나와 우리를 위로하는 그림책은 정서적능동성을 통해 서로의 경험을 이해하고 그림책을 읽고 7분 글쓰기, 나와 마주하는 글로 쓰는 시간, 아주대학교생과 자립대학생을 대상으로 포토포토스 활동을 통해 미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장소는 아산대 방송아 교수, unkoak 최지진, 양주만 작가, <책 읽는 사람>의 저자 이진선 작가 등이 참여한다. 아산대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은 양평군내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사업기간은 5월부터 10월까지이다.

‘서울과 한국 위한 기도’ 서울시조찬기도회 열린다

4월 19일 오전 7시 두 번째 기도회

제2회 서울시조찬기도회가 오는 4월 19일(수) 오전 7시 서울 송파동 대교로에서 열린다. 서울시조찬기도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정성길)는 지난 3월 22일(목) 서울영리교회에서 기거회를 갖고, 기도회

취지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 자리에는 운영위원장인 정성길 장로와 사무총장 박원영 목사를 비롯해 운영위원장인 유광원 목사와 두상달 장로, 그리고 기도회 담임 장사로 나설 김지연 대표(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이 참

석했다. 서울시조찬기도회는 서울시 48개 지역구 국회의원 뿐 아니라, 25개 구청, 서울시·구의원 등 약 500명의 정치 지도자들과 함께 서울시와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는 모임으로 지난해 7월 27일 창립되었다.

홈페이지 www.lovehousecare.com ·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홈페이지 www.lovepn.com



노인 장기요양시설 경기도 이천 사랑의집

어르신들을 내 가족처럼 내 부모처럼 모시겠습니다

사랑과 정성으로 모시겠습니다. 사랑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박용영 목사입니다. 사랑의 집 홈페이지를 찾아주셔서 매우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치매, 중풍, 당뇨, 관절염, 파킨슨병, 노인성질환 및 독가, 인, 장, 단기 요양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정성스럽게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집은 전원적인 농촌에 있는 요양시설입니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에서 좀더 편안하고, 좀더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내집같은 곳입니다. 깨끗한 시설과 쾌적한 주의 환경...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으며, 풍부한 경험의 요양보호사들이 24시간 상주하여 어르신들을 가족처럼 돌봐드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민들의 경제를 생각하여 저렴한 요양비로 모시고 있으며, 저희를 믿고 찾아주시면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사랑의 집에서 가족처럼 정성을 다해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집 원장 박용영 목사



오성사랑교회(담임 박용영 목사)

■ 사랑의집 연혁

- 2009. 07. 10 사랑의집 개원 (9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 2011. 07. 27 사랑의집 신축건물 준공
- 2011. 11. 23 사랑의집 10인 시설 인가
- 2014. 02. 10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 (봉사단체 설립)
- 2019. 09. 23 사랑의집 20인 시설 인가
- 2020. 05. 11 사랑의집 29인 시설 인가

■ 사랑의집 시설장

- (박용영 목사 수석장)
- 2007. 10. 3 이천교회원외 표창
- 2014. 12. 13 이천시정 표창
- 2016. 02. 18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 2019. 09. 28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표창
- 2020. 12. 18 이천시정 표창



요양보호사 모집

사랑의집 연락처 : 031-643-4041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읍면 금융로 82번길 198-50

010-2217-4489 010-8732-4489

가족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전도 아카데미 원장

일본땅 구령열정!

일본오사카신학교신교회 강역형 선교사와 사모 33년 전부터 땅에 주님의 부름 받아 순종으로 음압교회 선교의 여정을 여시고 매 순간마다 기적의 현장이었다.

주님은 함께 하시니,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꿈은 산지를 끝까지 불태우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열은 온 사역을 삼켜버리니.

주님 기뻐하신다면, 주님께 영광 받다! 온몸 바쳐 헌신의 노고를 다하신 사모님의 사랑의 열정은 살아있는 마음을 녹이기에 충분했다.

후학들을 양육해서 선교의 모토로 믿음의 발판을 놓았던 그 씨앗들이 열매로 열리고 있다.

후수들에게 믿음의 광경을 통하여 마음껏 선교가 펼쳐지리라.

나는 여러 나라 학생들에게 그동안 훈련되어진 가족세전도교회 강의를 매 시간마다 하루에 세 시간씩 나누었다.

이들의 순박한 신앙심, 초콜렛처럼 배운 열기, 도전받고 새롭게 도전하는 모습만 봐도 감동할 하며 보람 있었다.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여기 일본에서 가족세전도교회는 댔다.

동네에는 젊은 사제가 운영하는 카페에서 빵과 커피, 주스와 커피로

담배를 아낀 사역을 하고 있었다. 강역형 선교사와 사모, 이렇게 교수와 함께 담배를 나누면 저, 일본 사자에게 전도라는 성경님의 강력한 감동을 받았다.

드디어 기회가 왔다! 사모님이 받았는 주스를 가져 왔을 때였다. "야, 주스가 너무 맛있습다" "자립 잘되시라고 축복 기도 해드렸습니다" 손을 내밀었다.

한 손은 잡고 오른손은 머리에 얹고 축복기도와 영접기도를 따라하게 했다. 센스 있는 선교사가 봉역을 하고 그 사장은 포복모반 하면 까지했다. 선교교회 목사를 소개해드리고 교회 위치를 알렸다. 계속 기도하시고 열매 맺을 때까지, 찾아서 살만 한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이런 강의 동안 도전받고 결심의 고백들을 했다. 외국에서도 일본 땅에서도 가족세전은 댔다. 전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린다.

가족세전도 총괄 본부장 이수 교수

동영상: <http://blog.naver.com/bys2573>
가족세전도 대표본부장 박영수 목사
평내순복음교회 강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692-6911, 010-3730-2573

믿음으로 세바 같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헌론회 대표, 칼빈대 전 교수, 대성교회

역경이 강하게 한다



이 사람은 고등학생 때 피아노와 피아노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가 하는 일은 바타에 붙인 플리머를 떼어내는 것이었다. 한 번은 50개의 플리머를 떼는 상자가 터졌다. 아무도 그것을 떼어낼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때 집의 주인이 바타에 붙어 있어서 떼어낸 플리머를 열심히 떼어내고 있었다. 자매가 출신의 이 소년의 집안 형편은 좋지 않았고 학교성적도 중하위권에 속했다. 그러나 이 소년은 남들이 갖지 못한 장점이 있었다.

정직하고 성실했으며 시련 앞에서도 용감했다. 소년은 정식 성실, 투지를 자신으로 삼아 결국 미국의 합참이 되었다.

이 사람의 이름이 바로 칼프의 영웅 칼빈 파워(Colin Luther Powell)이다. 그는 백인도 아니고 영국로색스족도 아닌데 미국인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로 손꼽히고 있다. 칼빈 파워는 자신의 성공 비결을 간략하게 밝혔다.

‘역경은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역경에 굴복하면 고난은 농담이처럼 커진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으나 한두 가지의 장점도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 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더우다다다.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試練)을 만나게는 온전하게 가리게 하기 위함이었다. 신앙의 위인 다윗의 삶을 통해서도 역경이 사람을 강하게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고 있다. 목동에서 전쟁 영웅으로, 그리고 왕으로 가는 모든 길은 역경을 통하여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진행되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금같이 되어나오리라’(욥 23:10)

초대시

전해수 // 은혜마침의교회 권사

그날 밤

타닥 타닥 마른장작 태워지고
웅성웅성 밤 추위가 뜰 안 가득한 그날 밤.
자신을 알아볼까 두려움 가득 안고
숨죽여 앉아있는 초라한 베드로.

비자의 한마디에 맡겨버진 베드로의 믿음.
그 실체 앞에 저주스러움을 느끼던 그날 밤.
사랑하는 제자의 목소리에 뒤 돌아보시는 주님.
죽기까지 따르겠다는 제자는 어디갔나. 초라한 베드로

우리의 연약함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주님.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의연한 일이 어찌 세 번 뿐이라.
사랑의 눈빛 만난 또 다른 베드로들..
말씀에 힘입어 주께로 돌아오는 주님의 참사랑 때문이라.

금혼한 마음으로 지그시 바라보는 사랑의 눈빛
세 번씩 주를 부인한 베드로. 그를 향한 주님 마음.
담 울음소리에 생명의 말씀 기억하고
통곡으로 어려서는 자신을 회개하는구나.



고난 주간 녹 22:54-62 말씀하다
세 번씩 부인한 베드로 속에서
나를 발견한다. 성령의 음성 거스르던
내 모습 어찌 베드로를 나뉠 수 있었을까?
통곡하는 베드로가 나를 일으켜 세운다.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 편집 집 조문 : 정형위원장 조용목 목사
●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 인쇄 : 배성현

● 연락처 : 편집국 ▶ (02)2677-9935 ~ 6, 구독문의 ▶ (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림 5

● 본보는 신문을대량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게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홈페이지 : www.ucl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림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 취지

본 연합회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을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지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턴이었으며 고교를 수강하여 이수 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앙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 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양교육이 있는 자 3. 신앙결례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학교에 입학한 후 2년 이상 재학한 자 또는 재학 중인 자

2. 제출서류(1종)

-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②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 ③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 ④ 타 신학과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 - 원장증
- ⑤ 주도등록증(2학기 이내 발급)
- ⑥ 신앙고백서(사용지 2매 이내)
- ⑦ 편입학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홈페이지 : www.ucls.org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0720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림8

예수교대한
하나님의성회

2023학년도 사이버목회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

● 설립 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 및 목회자를 양성하는 총합(總)목회자 교육 기관으로서 사역자가 목회인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 목적

본 대학원은 전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神學) 이론(理論) 실용(實用)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교회의 교회(教會) 임무(使命)를 감당할 수 있는 신학(神學) 이론(理論) 실용(實用) 신학을 갖춘 목회(牧會) 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 원 훈

- 발음준비, 성경강론
- 목회실용
- 온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2-2632-069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림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9707205)
● 홈페이지 : www.ucls.org
e-mail : ucls5181@naver.com

1. 모집학과 및 지원 자격

학 과	과정	수업연한	지원자격
목회학과	목회학 석사 (M.M/Minister of Ministry)	3학기	● 본 교단 소속의 목사는 모든 전도사 ● 본 교단 신학과 졸업자 ● 타 교단 신학과 졸업자(신학원) ● 타 교단 교목으로서 본 교단목회학의 을서 학위를 받은 자

2. 전형 방법

① 서류 전형 및 면접

3. 전형 일정

① 원서 접수 : 수시 ② 원서교부처 : 본 대학원 행정실 및 대학원 홈페이지

4. 전형료

① 전형료 : 30,000원 ② 재외국 : 국민은행 061737-04-005354(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5.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 대학원 소정양식) 1부
- 최종학교 졸업(예정)증서 및 성적증명서 각 1부
- 주도등록증(2학기 이내 발급)
- 타 교단 신학과 졸업자(신학원) 1부
- 신앙고백서(사용지 2매 이내)
- 편입학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6. 특전 및 기타사항

- 본 대학원 졸업자는 졸업과 동시에 목회학 석사(Master of Ministry/교단인턴) 학위를 수여하여 교단 목회자로 종사자에게 부여한다.
- 본 대학원 강의는 매주 월요일 홈페이지에 일요로 되고, 교목실 행정실에서 문자로 제발급 경우에는 학과 발표 이후에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본 대학원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대학원 홈페이지 www.ucls.org 에서 출석 신청 후 E-Mail 혹은 우편으로 접수 가능.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